제1장

선진 · 한당시기 유학 연구

김동민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5년 한국유교문화 레포트〉의 한 부분으로, 2015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 및 한당〉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2015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먼저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은 모두 22개의 철학 전문 학술지이다.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 및 한당〉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00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선진시기가 총94편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진한시기가 4편, 한대 이후부터 수당시대까지가 2편이었다. 이 논문들 중에서 유학 이외의 노장철학이나 도교 관련 논문 24편과 기타 제자백가 5편은 본 조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인 유학 사상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71편이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종교, 다섯째 교육, 여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① 공자: 16편, ② 맹자: 6편, ③ 순자: 11편, ④ 기타 인물: 4편으로 나타났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 관련 논문이 33편이고, 기타 인물은 한대의 유가 사상가인 陸賈 · 賈誼 · 董仲舒 · 揚雄과 관련된 논문이 각 1편씩이다. 2014년도의 조사에서는 공자 관련 논문이 11편, 맹자 관련 논문이 13편, 순자 관련 논문이 4편으로, 맹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2015년도에는 순자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선진시대 이후의 인물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董仲舒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1편이 제외하고, 王充이나 鄭玄 등의 한대를 대표하 인물이나 한대 이후의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 한대 이후부터 송대 신유학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각 시대마다 전개된 유학의 다양한 모습을 발굴하여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최정묵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 79	한국동서철학회
2	임헌규	『논어』에서 학(學)의 의미	『동방학』 3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3	정대환 유지웅	공자철학에서 '性'과 '習'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4	이승모	공자의 정의관에 대한 일고찰 –'의'와 '정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5	박평선	孔子 大同思想의 實現 主體와 方法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6	이철승	공자의 '華夷'관과 문화의식	『중국학보』 74	한국중국학회
7	안희진	공자의 '소정묘 사건'을 논함	『중국학보』 73	한국중국학회
8	윤용남	공자의 단비교육법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9	임헌규	공자의 인문주의와 그 교육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이광소	孔子의 對象適格敎育論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11	김재경	자로에 대한 공자의 피드백 분석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12	박성규	『논어』에서 공자의 완곡어법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13	이기원	공자의 인인시언적 방법과 철학상담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문답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4	이상호	孔子의 윤리 상담에 관한 硏究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15	이임찬	노자와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爲'의 문제– '樸'과 '直'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16	안춘분	孔子의 『春秋』大義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공자 및 『논어』와 관련된 논문은 모두 16편으로, 2014년의 11편에 비해 약간 많다. 그 내용은 공자와 『논어』에 관한 거시적인 이해부터 미시적인 분석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논어』에 보이는 핵심 개념을 분석하거나 공자의 주요 사상이 지닌 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내용이다. 『논어』의 '學'이나 '習' 등의 세부 개념을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정명론이나 대동사상, 화이관 등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공자의 사상에 접근하는 시도도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최근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논어』나 공자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된 논문이 7편 정도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공자의 교육 방법을 최근 한국 교육에서 주목하는 교육 기법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맞춤식 교육이나 문답식 교육,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피드백이나 언어사용법 등 매우 구체적인 교육기법을 동원하여, 공자의 교육이 지닌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철학상담이나 윤리상담 등 심리학의 관심 분야를 공자와 접목함으로써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찾으려는 신선한 시도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자와 노자의 비교를 통해 유학의 인간 이해가 가진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밝힌 논문도 주목할 만하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애란	『맹자』「觳觫」장 분석을 통해 바라본 性善과 도덕적 확장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2	이경무	유개념에 대한 맹자의 인식과 활용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3	이종우	맹자의 시비지심, 智 = 선의 의미: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4	류청평	맹자 '民貴'설에 있어서 '尊君'의 실질	『퇴계학논총』 25	퇴계학부산연구원
5	김철운	孟子의 用夏變夷說	『중국학보』 72	한국중국학회
6	성동권	孟子의 四端擴充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맹자 및 『맹자』와 관련된 논문은 6편에 불과하다. 2014년에 13편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다. 먼저 맹자 철학의 핵심인 性善論이나 是非之心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다룸으로써 기존의 이론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의 논문들이 보인다. 「곡속」장을 분석한 이애란의 논문에서는 性善이 도덕 감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성선론이 단순한 이론의 차원을 뛰어넘어 도덕적 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임을 밝힘으로써 성선론의 의미를 기존의 시각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맹자의 정치 이론을 다룬 두 편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그 중에서 「맹자 '民貴' 설에 있어서 '尊君'의 실질」이라는 논문에서는 맹자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인 '民貴'를 '民本' 관념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지만, 그것이 향하는 최종 목적은 '尊君'이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기존의 이론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3) 순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지준호	순자의 학문관 고찰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2	이택용	『순자』 性惡論의 바탕에서 '禮'는 원초적으로 성립가능한가?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3	장원태	순자의 '群' 개념을 통해 본 욕망과 본성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4	윤태양	순자에게 있어서 도덕행위 주체로서의 마음(心)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정희	순자철학에서 심과 성 및 예의의 관계	『동서철학연구』 75	한국동서철학회
6	김정희	순자의 合과 和를 위한 分사상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7	구연상	荀子의 惡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8	강지연	『荀子』에서 본 '情'의 의미	『동방학』 3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9	김상래	荀子의 孟子批判, 그 윤리적 의의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10	김철운	荀子의 觀相 비판과 道德實踐 근거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11	지준호	荀子의 도덕교육론 – 化性起僞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47	한국철학사연구회

순자 관련 논문은 2014년의 4편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한 11편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순자의 주요 철학을 세부적으로 다룬 내용부터 교육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폭넓게 진행되었다. 먼저 惡·情·心·禮 등의 개념 분석을 통해 性惡論의 의미나 도덕적 행위의 실체를 밝힌 논문들이 몇 편 보인다. 性惡論과 禮의 관계를 다룬 이택용의 논문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두 가지의 경향성, 즉 욕망을 쫓는 경향성과 可함을 쫓는 경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禮가 성악론의 바탕 위에서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도덕행위의 주체인 마음에 대한 다룬 윤태양의 논문에서는 순자의 도덕 이론은 인간의 마음이 가진 도덕적 경향성을 제거함으로써 합리적 사고의 주체인 마음과 도덕규범인 禮를 통해 구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동일하게 순자의 성악론을 다루고 있지만, 각각의 논문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논문들을 상호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성악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자 성악론의 핵심 개념인 '化性起僞'를 교육과 연결지은 지준호의 논문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화성기위'를 자기 성찰의 수양과 자기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청하는 인격적 리더의 양성을 강조하였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원일	陸賈의 逆取順守 觀念에 대한 硏究	『중국학논총』 48	한국중국문화학회
2	조원일	賈誼의 政治思想에 관한 硏究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3	조원일, 박복재	揚雄의 修養論思想硏究	『중국학논총』 45	한국중국문화학회
4	안승석	董仲舒 政治思想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4편인데, 모두 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를 다룬 논문이다. 2014년에도 6편의 논문이 모두 한대 사상가를 다루었는데, 2015년에 다룬 네 인물과 함께 鄭玄을 대상으로 한 논문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동중서 관련 박사학위논문을 제외한 세 편의 논문이 모두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었다는 점이다.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 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대를 대표하는 동중서의 이론이 한초의 陸賈와 賈誼 등과 같은 유가 사상가의 이론을 기초로 삼아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한대 유학의 근본 토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 경학사상 14편, ② 철학 39편, ③ 교육 9편, ④ 정치 및 경제 5편, ⑤ 기타 4편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에 비해 경학사상 분야가 소폭 감소했고, 철학 분야는 약 10편 정도 상승하였다. 정치 및 경제 분야도 1편에서 5편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 연구보다는 공자 · 맹자 · 순자 등 주요 사상가들의 이론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철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논어』와 『주역』 등 기존에 이미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경전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가 부족했던 다른 경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학 분야에서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26편의 논문 이외에, 13편의 논문이 다양한 주제로 선진시대의 사상사를 다루고 있다. 선진 유학의 심성론이나 인간론, 윤리론 등과 같이 철학 이론을 주제로 한 논문들도 보이고, 仁과 恕, 禮와 德 등과 같이 핵심 개념을 분석한 논문들도 보인다. 그 외에 『주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해석한 논문도 보인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전호근	유가 철학 원전 전승의 문명사적 의의 – 十三經注疏의 성립과 전승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6-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	윤화중	『中庸』의 費而隱에 관한 현대적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김용재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6]-「雍也」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4	김영호	『論語』 顔淵問仁章 辨釋	『한국철학논집』 44	한국철학사연구회
5	박세늬	『論語 · 子罕』第5章 '子畏於匡…' 句新釋-'玆'字의 해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45	한국중국문화학회
6	이선행	『주역』의 神字의 용례를 통해 본 神의 함의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7	원용준	상박초간 『주역』 菉괘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8	박재복	『尙書』에 보이는 갑골점복 고찰-최근 발견된 출토자료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9	마사원, 송해연	「禹貢」 '靑茅'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0	안춘분	『春秋』의 中華思想과 춘추제후국의 中心移動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11	신백훈	『禮記』 「禮運」篇의 大同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12	복대형	『左傳』의 政治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공주대
13	안춘분	孔子의 『春秋』大義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14	장영동	『周易』의 性命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원광대

경학사상 연구는 유교 경전을 대표하는 四書五經에 대한 훈고학적 분석이나 경전해석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나 경학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다. 개별 경전 각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중용』 관련 논문 1편, 『논어』 3편, 『주역』 3편, 『상서』 2편, 『춘추』 2편, 『예기』 1편이다. 四書의 경우는 주로 철학 이론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훈고학적 분석이나 경전해석학적 접근, 경학사적 의미 등을 다룬 논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작년에 비해 『논어』에 대한 경학 연구 성과가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오경 중에서 『주역』과 『상서』 분야는 최근 새로운 출토 자료가 발굴되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경전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자료나 서로 내용의 차이를 보이는 자료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경전의 원류를 찾는 작업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경학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드문 『춘추』 분야의 연구 성과도 3편이나 보인다. 그 중에서 안춘분의 두 편의 논문에서는 『춘추』 大義思想의 본질을 밝히고, 『춘추』 속에 보이는 제후국들의 관계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중화사상의 근원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논문은 경학사상의 기본 텍스트인 십삼경주소의 경학사적 의미를 다룬 전호근의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가 철학의 핵심 원전인 십삼경주소의 성립과 전승 과정을 통해 유교 경전이 지닌 문명사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경학의 탄생과 전개 과정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유가 철학의 원전인 경전의 탄생이 인류의 문명사적 사건이며, 그 전승 과정도 또한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유교 경전의 성립과 전승 과정에 대한 연구가 현대의 우리들이 고전을 읽고 재해석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최정묵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 79	한국동서철학회
2	임헌규	『논어』에서 學의 의미	『동방학』 3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3	정대환, 유지웅	공자철학에서 '性'과 '習'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4	이승모	공자의 정의관에 대한 일고찰 – '의'와 '정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5	박평선	孔子 大同思想의 實現 主體와 方法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6	이철승	공자의 '華夷'관과 문화의식	『중국학보』 74	한국중국학회
7	안희진	공자의 '소정묘 사건'을 논함	『중국학보』 73	한국중국학회
8	이임찬	노자와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爲'의 문제 – '樸'과 '直'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9	이애란	『맹자』 「觳觫」장 분석을 통해 바라본 性善과 도덕적 확장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10	이경무	유개념에 대한 맹자의 인식과 활용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11	이종우	맹자의 시비지심, 智 = 선의 의미: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12	류청평	맹자 '民貴'설에 있어서 '尊君'의 실질	『퇴계학논총』 25	퇴계학부산연구원
13	김철운	孟子의 用夏變夷說	『중국학보』 72	한국중국학회
14	지준호	순자의 학문관 고찰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15	이택용	『순자』 性惡論의 바탕에서 '禮'는 원초적으로 성립가능한가?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16	장원태	순자의 '群' 개념을 통해 본 욕망과 본성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17	윤태양	순자에게 있어서 도덕행위 주체로서의 마음(心)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회
18	김정희	순자철학에서 심과 성 및 예의의 관계	『동서철학연구』 75	한국동서철학회
19	김정희	순자의 合과 和를 위한 分사상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20	구연상	荀子의 惡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21	강지연	『荀子』에서 본 '情'의 의미	『동방학』 3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2	김상래	荀子의 孟子批判, 그 윤리적 의의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23	김철운	荀子의 觀相 비판과 道德實踐 근거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24	조원일, 박복재	揚雄의 修養論思想硏究	『중국학논총』 45	한국중국문화학회
25	김성기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있어서 東夷文化의 지위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26	김상준	유교윤리의 기원과 보편성	『사회사상과 문화』 18-1	동양사회사상학회
27	최일범	유학의 심성론과 심리학 – 중용과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8	류근성	선진 유가 인간론의 자연주의적 토대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29	박길수	性命의 관점에서 본 선진 유학의 행복 관념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30	정상봉	共存과 共感의 근거: 仁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31	이향준	죄수의 밥그릇	『유교사상문화연구』 62집	한국유교학회
32	김재경	恕와 죄수의 딜레마	『동양철학연구』 83	동양철학연구회
33	이장희	禮와 德	『동방학』 3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34	이찬희	『論語』에서 드러나는 '즐거움'의 생명적 구조와 성격 해석－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존재론의 방법론적 적용과 비교	『시대와 철학』 26-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35	김연재	天道의 페러다임에서 본 周易의 聖人精神과 그 人文主義的 세계	『중국학보』 71	한국중국학회
36	김성기	역경철학중 占관념의 변화연구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37	김재홍	周易에서의 謙遜에 대한 哲學的 小考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38	성동권	孟子의 四端擴充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39	조주은	陰陽五行의 結合過程 研究 : 天人關係論과의 相關性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39편인데, 한대 철학 1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선진시대의 인물이나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자 · 맹자 · 순자를 중심으로 한 인물 중심의 연구 성과 26편을 제외한 13편의 논문에서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김성기의 논문은 중국 고대의 東夷文化를 통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을 탐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華夷觀에 기초하여, 東夷文化를 中原文化와 대립되는 夷狄의 문화로 인식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동이문화가 다양한 방면에서 수준 높은 문명을 형성했으며, 중화문화의 형성에도 중요한 공헌

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향후 동아시아 문명의 형성이나 고대사의 전개와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진시대의 윤리학이나 심성론, 인간론 등을 다룬 몇 편의 논문 중에서 유학의 심성론과 현대 분석심리학의 융복합을 시도한 최일범의 논문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유학이 미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유학의 심성론이 가진 현대 심리학적인 의미에 주목하였다. 즉 유학의 핵심 이론인 중용의 원리를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대 심리학이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선진 유학의 핵심 주제인 仁과 恕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몇 편의 논문이 보인다. 정상봉은 仁이라는 개념이 선진 유학에서 한당 유학, 북송 유학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철학사적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다. 共存과 共感의 근거가 되는 仁이 형이상학적 사유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면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향준과 김재경의 논문은 현대 윤리학의 주제 중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를 恕개념과 관련지어 논의함으로써 선진시대 유학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김재경의 논문에서는 『논어』의 '덕으로써 원망에 보답한다[以德報怨]'라는 말과 '죄수의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TFT전략의 상호 비교를 통해, 선진 유가의 윤리학에서 현대 윤리학의 딜레마를 해결할 단서를 찾는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윤용남	공자의 단비교육법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2	임헌규	공자의 인문주의와 그 교육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3	이광소	孔子의 對象適格敎育論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4	김재경	자로에 대한 공자의 피드백 분석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5	박성규	『논어』에서 공자의 완곡어법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6	이기원	공자의 인인시언적 방법과 철학상담 -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문답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7	이상호	孔子의 윤리 상담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8	지준호	荀子의 도덕교육론 - 化性起僞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47	한국철학사연구회
9	고대혁	『주역』 蒙卦의 상징과 교육적 의미	『동양고전연구』 58	동양고전학회

교육 분야의 연구는 순자와 『주역』과 관련된 논문 2편을 제외한 7편이 모두 공자와 『논어』의 교육 관련 논문이다. 최근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양의 인문주의 교육의 원류를 밝힌 임헌규의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자가 오경으로 대표되는 동양적 인문학의 대표 교과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동양적 인문주의 정신을 창도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인문학의 토대를 세우는 데 큰 시사점을 던져 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몇 편의 논문에서는 현대 교육에서 강조하는 강의기법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자의 교육 방법을 통해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재경은 이미 작년에 「人性敎育의 기초로서 孔子의 피드백 사례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공자의 교육 속에 담긴 인성교육의 방법론을 찾는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번에는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추가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유학의 교육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신 건강과 관련된 심리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자의 문답법을 분석하여 철학상담이나 윤리상담의 방법론을 찾고 있는 두 편의 논문도 흥미를 끈다. 제자들의 성격이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공자의 문답법이 철학상담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임을 밝힘으로써 유학이 현대의 심리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선경	易의 감응론과 유학의 공감정치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2	조원일	陸賈의 逆取順守 觀念에 대한 硏究	『중국학논총』 48	한국중국문화학회
3	조원일	賈誼의 政治思想에 관한 硏究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4	정병선, 김혁	『周易』 損 · 益卦의 經濟的 含意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5	안승석	董仲舒 政治思想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

정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역』의 이론을 통해 유학의 공감정치를 다룬 논문 1편과 한초 유학을 대표하는 董仲舒, 陸賈와 賈誼의 정치 이론을 다룬 논문이 각각 1편씩 보인다. 이선경의 논문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전제 조건인 공감에 주목하여, 그 이론적 토대를 『주역』의 감응론에서 찾고 있다. 전통 유학의 정치사상이 타인에 대한 공감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으며, 그것의 핵심 내용이 『주역』의 감응론에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유학의 공감의 정치원리가 현대 한국의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원일은 한나라 초

기의 사상가인 육가와 가의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정치 이론을 전개한 점을 밝힘으로써 유학의 정치사상이 가진 시의성에 주목하였다. 정병선과 김혁의 논문에서는『주역』속에 포함된 경제적 함의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현대 사회의 경제에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주역』의 損益之道가 현대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제 정책에 일조할 수 있는 경제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기타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응학	儒家美育과 서예의 品格 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2	박영진	春秋時代美學思想形成初探 - 以『易傳』·『考工記』·『樂記』爲中心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3	이동아	『周易』의 變通槪念에서 본 현대리더십의 경향	『유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김권환	『論語』와『莊子』에서의 老年 認識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기타 연구 분야에는 유가의 미학사상을 다룬 두 편의 논문과『주역』이론을 현대리더십의 측면에서 재해석한 한 편의 논문, 그리고『논어』와『장자』의 노년 인식을 다룬 논문 1편이 보인다. 먼저 박영진의 논문은 1차 원전 자료를 바탕으로 춘추시대 유가 미학사상의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아시아 미학 사상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동아의 논문은『주역』의 變通 개념을 현대리더십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현대리더십에서는 조직이나 단체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주역」의 변통 개념이 바로 변화와 소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리더십의 이론 정립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김권환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논어』와 『장자』에 보이는 노년 인식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윤리를 찾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에 기록된 71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학술 조사 보고서에서는 각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논문의 핵심 내용과 그 학술적 가치를 제시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세 편의 논문을 별도로 선별하여 그 논문의 내용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이임찬의 「노자와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爲'의 문제 - '樸'과 '直'을 중심으로」이다. 최근 한국 교육계의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인성교육이다. 학문 분야에서도 학제간 융복합이라는 기존의 주제가 인성이라는 화두로 급격하게 옮겨가는 추세처럼 보인다. 사실 인성이라는 주제는 동양철학 분야의 오래된 연구 대상이었는데, 교육이라는 현안과 결합됨으로써 철학 분야의 현실적 고민으로 다가온 것일 뿐이다. 인성 교육이라는 문제는 체계적인 이론과 구체적

인 실행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함께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와 시행착오가 필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관심사와 관련지어 본다면, 동양철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룬 이 논문은 향후 인성교육의 체계를 확립하는 출발점이자 이론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성격 규정과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학술적인 가치 이외에도 상당히 큰 시사성을 지닌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동양철학계의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필자의 말을 빌리면,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선악의 틀'과 같은 '추상적 사변'이 아니라, 德이라는 경험적 층위에서의 인간 이해는 군자나 성인과 같은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는 덕론과는 구별되며, 경험 세계의 인간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사실'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연구 방법에 평자도 매우 공감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자는 이 분야의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고, 논문의 구성과 전개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간단하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평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인간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논의라는 논점 하에, 노자

와 논어의 인간 이해, 그 중에서도 특히 德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마음[心]과 행위[行]라는 두 측면을 포함한 德이라는 개념이 노자와 공자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이므로 두 사람의 인간 이해도 마음과 행위라는 두 측면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경험적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樸과 直이라는 개념이며, 이 개념은 두 사람의 철학 체계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분기하는 시작점이라고 단정한다. 여기에서 먼저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덕이라는 개념의 함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노자와 공자가 사용한 德 개념이 마음과 행위라는 두 측면이 결합된 개념인가 하는 점이다. 『논어』의 "德不孤, 必有鄰.", "以德報德", "鄕愿, 德之賊也." 등이나 『노자』의 "生之畜之 , 生而不有 , 爲而不恃 , 長而不宰 , 是謂玄德."이나 "上德不德 ,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 是以無德. 上德無爲而無以爲 , 下德無爲而有以爲." 등과 같은 사례에서 사용된 덕 개념은 대체로 德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마음이라는 측면과는 무관해 보인다. 陳來가 "덕이라는 개념이 心을 구성 요소로 갖게 된 이후, 인간의 의식, 동기, 심의와 많이 관련되었다"라고 말한 의미의 마음으로서의 德 개념은 맹자의 四德과 같이 후대에 덕의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경우에 해당되고, 노자와 공자가 사용한 덕 개념은 행위의 측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다.

이와 관련해서, 그들이 사용한 덕의 개념은 맹자 등이 사용한 四德으로서의 덕 개념보다는 축소된 형태이며,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탁월성(德)'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필자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의 기원을 주로 습관으로부터 설명한다. 즉 탁월성은 본성에 의해 주어진 것도 아니며, 본

성에 반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습관은 본성이 허용한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본성을 탁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열등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의라는 탁월성을 놓고 보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완전히 부정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태어난다. 정의로운 활동 혹은 부정의한 활동의 반복을 통해 습관화될 때, 그것은 정의라는 탁월성으로 굳어지거나 혹은 부정의한 악덕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품성 상태가 곧 탁월성(德)이며, 잘못 발휘하는 품성 상태가 부정의라는 악덕이라는 것이다. 노자나 공자가 사용한 덕 개념도 인간이 본래 타고난 본래 본성으로서의 四德과 같은 철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 올바른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성과 유사한 의미로 보이는데, 필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둘째, '樸'과 '直'의 도출 과정과 상호 대비의 타당성 문제이다. 필자는 德이라는 틀로 인간을 이해했을 때, 인간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개념이 '樸'과 '直'이라고 단언한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먼저 德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박'과 '직'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연관성에서 도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박'과 '직'은 '덕'의 또 다른 형태의 표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의 논의를 참조하면, '박'과 '직'은 아직까지 어떠한 외부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은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상태이다. 이에 비해 '덕'은 일정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 상태이며, 현실 세계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의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노자가 말한 '박'의 상태는 '無知'와 '無

欲'의 순수한 원초적 상태인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덜어내거나[損之又損]' '버리는[棄]'는 적극적인 활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획득되는 것이 德이다. 그리고 공자가 말한 '직'도 인간의 원초적인 본래의 모습인데, "直而無禮則絞"나 "好直不好學, 其蔽也絞"와 같이 '禮'나 '學'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가해져야만 비로소 德을 이루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以直報怨, 以德報德'과 같이 '직'과 '덕'은 분명히 다르며, '덕'은 '직'보다 도덕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德'이라는 틀에서 인간을 보았을 때,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박'과 '직'이라는 필자의 논리에 다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박'과 '직'이 노자와 공자의 인간 이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한 짝을 이루어 함께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박'의 경우는 노자의 철학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개념이며, 損이나 棄의 노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의 경우는 노자에서 차지하는 '박'의 위치와 같이, 과연 공자가 추구하는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이자 공자의 인간 이해를 대표하는 개념인가 하는 점이다.

- 恭而無禮則勞, 愼而無禮則葸,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논어』「태백」)
- 好仁不好學, 其蔽也愚, 好知不好學, 其蔽也蕩,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好直不好學, 其蔽也絞, 好勇不好學, 其蔽也亂, 好剛不好學, 其蔽也狂.(『논어』「양화」)

앞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直은 노자의 '박'과 같이 인간이 나아가야

할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禮와 學과 같은 외부적인 노력에 의해 다듬어져야 할 일종의 원석과 같은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 점은 필자도 이미 지적한 부분이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直은 恭·愼·勇이나 仁·知·信·勇·剛 등과 같이 인간의 여러 행동 중의 하나일 뿐, 특별히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노자의 '박'과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큼 공자의 인간 이해를 대변하는 핵심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자가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특별히 '직'을 '박'과 비교 대상으로 삼고, 또 '직'이 공자의 인간 이해를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단정한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구성한 목차를 살펴보면, 논리적인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목차의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필자가 목차를 구성한 목차들을 연결해보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론의 앞부분에서 필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자와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고 이 논문의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와 맞는 내용은 노자와 공자가 파악한 인간의 본래 모습인 樸과 直, 그리고 인간이 그러한 본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 好學과 爲道 등으로 한정된다. 나머지 敎와 治國 부분은 노자와 공자의 정치사상을 다룬 내용이다. 그것이 그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앞의 내용들과 연결은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필자가 내세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화두와는 관계가 없는 또 다른 주제가 되어 버린다. 즉 이 목차 전체를 그대로 살린다면, 이 글의 제목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한 공자와 노자의 정치사상'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화두에만 집중한 글이 되려면, '노자와 공자의 인간 이해',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가 같다.

- 노자의 인간 이해: 樸(원초적 인간의 상태) → 損, 棄 등을 통한 수양의 노력 → 德의 형성(바람직한 행동의 상태, 柔弱, 無爲 등) → 덕에 기초한 이상적 인간 행위(불언지교, 무위지정)
- 공자의 인간 이해: 직(直, 원초적 인간의 상태) → 學, 禮 등을 통한 수양의 노력 → 德의 형성(바람직한 행동의 상태, 자, 효, 인 등) → 덕에 기초한 이상적 인간 행위(정명지교, 덕행지정)

두 번째 논문은 류근성의 「선진 유가 인간론의 자연주의적 토대」이다. 서론에서 필자는 "실용주의적 자연주의가 선진시기 유가 인간론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라는 이 글의 핵심 요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선진유가의 범주 속에는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기존 학계의 시각에서 공자와 맹자, 순자의 인간론을 다룰 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필자의 방법론인 실용주의적 자연주의가 기존의 연구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밝혀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필자의 말대로라면, 선진유가의 인간론을 다룰 때 기존의 연구에서는 초자연적인 실체로서의 자연을 끌어와서 인간의 활동이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선진 유가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룰 때, 천인합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때의 천의 개념 속에는 초자연적인 실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공자의 인간론에서는 자연이나 천은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맹자에서는 단지 도덕적인 근거로서의 추상적인 천, 순자의 경우는 인간과 완전히 단절된 자연으로서의 천의 개념이 보인다. 굳이 필자가 방법론으로 채용한 실용주의적 자연주의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필자가 주장하는 유가의 인간론은 기존 학계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차별성은 과연 무엇인가?

또한 필자가 유가 인간론을 독해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첫째, 인간의 존재 조건인 자연에 관해, 선진 유가는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과 자연을 연속적 관계로 파악했다"라는 주장에서 자연을 초월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진 유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인간과 자연을 연속적 관계로 파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순자의 인간론과는 다소 다른 것이 아닌지? 순자는 천인분이를 주장하면서 철저하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기존 유가의 천인합일과는 다른 형식으로 인간론을 전개한 것으로 안다. 과연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까지 함께 포괄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2장에서는 1. 초월적 상제에서 자연으로, 2.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이라는 두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다. 1절의 최종 부분에서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선진유학은 도덕적 주체성을 핵심적 주제로 삼고 있었지 결코 형이상학적 하늘을 최고 개념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 당시 공맹의 도덕이론에는 형이상학적 하늘 사상이 없었다. 즉 형이상학적 하늘은 선진유학의 핵심적 소재가 아니다"라는 노사광의 주장을 결론으로 대신하고 있다. 사실 이 말은 현재 학계의 일반적

인 논의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새로운 주장이며, 또 그것이 필자의 방법론인 실용주의적 자연주의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순자의 이론을 끌어들여 논의를 전개하고, 2장에서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순자의 이론과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이라는 내용은 상호 대립적으로 내용으로 보이는데, 두 내용을 하나의 장 속에서 유가의 인간론이라는 동일한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2절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을 다루면서 중용을 잠시 언급하고, 한대의 자연관 또는 인간론을 단 몇 줄로 소개하고 있다. 한대는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한 천인관계론, 나아가 초자연적인 천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유 방식까지 존재하는데, 그것은 필자가 말하는 자연주의와는 상당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대의 천인관계에서의 인간론은 선진 유가와는 매우 큰 차별성을 보이는데, 과연 필자가 말하는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논문은 안춘분의 「『春秋』의 中華思想과 춘추제후국의 中心移動論」이다. 『춘추』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의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춘추』 연구의 시각 확대와 향후 『춘추』 연구의 토대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주제나 내용이 『춘추』 사상에 대한 철학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춘추』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제나라 · 정나라 · 노나라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내용을 다루고는 있

지만, 특별한 쟁점을 중심으로 일관된 주제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세 나라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논문의 제목에서 '춘추제후국의 中心移動論'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내용 전체로 보면, 중국의 패권 질서 - 필자의 말로는 인문주의적 중화가 이동하는 경로를 제나라 - 정나라 - 노나라로 설정하고 다룬 것 같다. 이러한 구도가 성립하려면, 인문주의적 중화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세 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언급처럼 단순히 제나라는 강대국이었고, 정나라와 노나라는 약소국을 대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루었다면, 논문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춘추』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화의식 · 화이관, 중국과 이적, 중화와 이적 등은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이다. 『춘추』 관련 연구에서는 '中華'라는 개념을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나 문명의 척도 등으로 사용하여, 이적과 대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필자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 『춘추』에서는 중화와 이적의 대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춘추 초기에는 중화의 중심에 있었던 제나라, 정나라 등이 후반부에 이적으로 취급받고, 이적을 대표했던 초나라나 오나라 등이 중화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한 화이관과 관련해서는 『공양전』과 『곡량전』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두 책에서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국가의 정치를 평가해서 포폄을 가한다. 이 논문이 일

관된 논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론의 첫 부분에서 "춘추시기의 강대국은 제나라 · 진나라 · 초나라이다. 본고는 齊나라의 尊王義理와 小國滅亡을 다루었고 약소국으로는 노나라 · 정나라에 초점을 두어 중심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魯나라의 過小와 事大, 鄭나라의 尊周意識과 保國義理를 상고하고, 더불어 인문주의적 가치론에 중심을 두어 실질적 중심국의 의미에 대하여 상고해 보고자한다"라고 했는데, 왜 제나라와 노나라, 정나라를 다루었는지, 또 왜 세 나라와 관련하여 그러한 제목을 선택했는지, 실질적 중심국을 밝히는 것이 『춘추』 연구에서 어떠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지 등등 많은 의문점이 보인다.

다음으로 본론의 세 파트의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제나라의 사례를 다루면서, 서두에 "이들의 나라가 패제후로서 중화세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면 춘추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혼란은 덜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의 나라가 패제후가 된 근거를 파악한다면, 오늘날에도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의미가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제나라의 존왕과 패왕의 측면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여, 제나라를 다룬 이유가 오늘날 교훈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노나라를 다루면서 "이 장에서는 약소국이 약소국의 정명을 다하였다면 강대국이 강대국의 정명을 다한 것 보다 오히려 우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라고 하여, 정명의 입장에서 노나라를 다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정나라를 다룬 이유는 "정나라는 약소국으로서 晉 · 楚의 패권에 대처하는 능력이 특수하였다"라고 외교 능력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결국 세 나라는 필자가 나름대로 제시한 '중화'의 특징에 의해 선별된 논의의 대상이 아니

라, 필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선별되었기 때문에 본론이 체계적인 논문의 형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개별적인 국가의 특징을 다룬 것으로 끝나버리는 느낌이 든다.

필자는 "중화중심의 의미는 '大一統' 과 '大同'의 의미와 근사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대일통과 대동을 중화와 같은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 사실 중화라는 개념 속에는 중국과 이적을 구분하는 내외차별의 역사관이 깔려 있다. 처음에는 지리적 개념에서 중화와 이적을 구분했지만, 나중에는 중화의 문화를 실현하는 정도에 따라 중화에서 이적으로, 이적에서 중화로의 변화를 언급함으로써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중화 개념과 대일통 또는 대동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든다.

먼저 필자는 "儒學에서 '大一'은 極임과 동시에 兩儀와 四象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춘추』에는 '大一統' 다음으로 四方을 기록하였다"라고 하여, '대일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공양전』에서는 '大'자를 동사로 보고, '하나로의 통일을 크게 여긴다'로 해석한다. 이와 비슷하게 '올바른 자리에 거하는 크게 여긴다'는 '大居正'이라는 용법도 보인다. 필자처럼 '大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것을 『주역』의 兩儀와 사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줄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이론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하의 논의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일통'의 이념 속에는 '중화주의'도 중요한 실현 목표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을 '대동'과 연결짓는 논리는 또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동은 차별을 부정하는 점에서

'중화주의'와는 대별되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둘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 각 개념들 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정밀한 접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글 전체의 논리구조와 이론전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자는 "'대일통'은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공유를 통하여 행동하는 형식과 동작을 만들어서 正道와 正行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 내부에 윤리적이면서 철학적인 가치를 내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仁·義·禮·智이다"라고 하여, 다소 논리적 비약을 보이고 있는데, 대일통 속에 인의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실 『공양전』의 대일통 이론은 통일제국의 이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황제 또는 천왕 중심의 일원화된 국가체제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그것이 인의예지라는 사상적 개념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보완되어야만, 필자가 주장하는 '중화주의가 곧 인문주의'라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나름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中華에는 조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체제 안에서 구심점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심점에 가깝게 접근하려면 인문주의의 덕목인 義의 실현을 통한 仁의 구현을 수반해야 한다. 그래서 中華는 仁이 구현된 실상의 세계를 말하며 中華의 중심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심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것은 인문주의에 의한 禮와 義가 살아있는 곳을 따라서 그 개인이나 국가에게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주장과 이 논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가 된다. 즉 대일통이라는 개념 속에는 인의예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일통과 동일한 개념인 중화는 인문주의이다. 또한 역으로

중화라는 개념 속에는 세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중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문주의의 덕목인 인의예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론적 근거나 논리적인 상관관계는 없이, 필자의 추론에 의한 주장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결론 부분에서 필자는 "『춘추』는 魯나라의 역사서이며 역사평가서이다. 『춘추좌전』도 노나라의 역사서이다. 그러므로 『춘추』와 『춘추좌전』에는 尊魯思想이 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노나라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는 존노사상이 들어 있다는 것은 제고해야 할 주장이다. 사실 존노사상은 『공양전』의 대표적인 『춘추』 해석의 하나이지, 『춘추』 자체에 존노사상이 들어 있다는 것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춘추좌전』이 노나라의 역사서라는 말도 제고의 여지가 있다. 『좌씨전』은 『춘추』를 해석한 전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노나라의 역사서라고 한다면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평가와 전망

2015년도 중국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의 국내 연구 논문 71편을 분석해본 결과, 국내 학계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연구의 내용면에서 보면, 인물별 분류에서는 대부분이 공자 · 맹자 · 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별 분류에서도 선진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의 이론이나 주요 경전에 대한 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방향면에서 보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거나, 다른 학문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2014년도에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국내 학계의 선진시대와 한당시대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경향이 어느 정도 고정된 연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연구 인력과 연구 자료로 인한 한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시대의 주요한 사상가나 핵심 유교 경전을 제외한 연구 분야는 전공자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기존 학계에 소개된 연구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여건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런데 선진시대 이후 진한시대나 위진남북조시대, 수당시대에도 유학사상은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나름대로 독특한 형태의 학문을 형성하고 있었고, 각 사상마다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 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또한 선진시대부터 수당시대의 유학은 유학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송대 신유학의 형성에 가교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학계 전반에 공통의 인식으로 자리잡아야만 비로소 연구 인력과 영역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영역이 나아가야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이와 같은 고민과 함께, 본 영역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학 분야의 주요 대상인 유교 경전은 중국철학 전 분야의 연구의 기초 텍스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

요한 대상이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학 분야의 연구는 내용의 다양성이나 논문의 편수 등에서 항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 중국철학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토대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필요 요건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철학 분야에서는 연구 내용의 다양성과 연구 영역의 확대를 위한 연구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공자 · 맹자 · 순자로 대표되는 선진시대의 주요 사상을 보다 심도 깊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사상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어 발전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다. 선진시대 이후 전개된 유학은 단절이 아니라 계승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학 전체에 대한 조망이 힘들 뿐만 아니라, 유학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진한시대와 위진남북조시대, 수당시대의 유학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와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그 연구가 지닌 학술적 가치와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한국 학계는 학문 융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분석해보면, 학문 융복합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른 학문과의 단순한 비교를 통해 유학의 우수성이나 현재성을 강조하는 유형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유학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과 학문의 입장에서 타 학문과 상호 공

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학문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타 학문과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서만 유학의 생존은 물론, 유학의 현대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양철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학문 영역에만 매몰되지 말고, 타 학문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연구 영역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